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부처님 (하)

김효학 (전북 익산시 신통동)

1996년 11월로 기억한다. 어느 때처럼 청년회 저녁법회를 마치고 우리는 강원도 월정사로 사찰순례를 떠나게 되었다. 밤에 떠나는 사찰순례였지만 그만의 독특한 멋이 있었다.

강원도라 그런지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다. 캄캄한 밤중에 도착하게 됐는데, 눈이 많이 쌓여서 차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등 불에 의지하고 한 시간 가량 걸어서 산을 오르게 되었다.

적멸보궁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작은 암자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고 새벽3시에 다시 적멸보궁으로 향했다. 한참 예불을 보는데 어찌나 졸음이 오던지 서서 예불을 모시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곤 했다. 그러나 그 졸음 가운데서도 산사의 멋은 내게 깊은 감동을 줬다.

눈 내리는 조용한 새벽에 부처님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드리는 기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지금도 감사히 여기는 것이지만 봉은사 청년회와의 만남은 부처님과 법우들과의 인연을 맺어준 일을 수 없는 생의 사건이었다.

이후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대학생활교원협회(대불련)에 가입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솔한잔에 삶과 인생을 풀어놓는 날도 적지 않은 탓에 우스개 소리로 '주(酒)불련'이라 부르기도 한 우리네 모임이었지만, 그래도 학생이란 순수함과 열정이 살아있는 수련과 포교의 공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불련 시절 시각장애인들의 가을 단풍 구경 행사에 참여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행사에서 이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 아닌 것으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

다. 그들은 "사람의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명씩 팔짱을 끼고 안내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안내를 맡은 시각장애인이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가까운 계단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두 눈을 가진 나는 단풍이 아름답다는 사

하고 연등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심한 병을 앓게 됐다. 일병 때였는데 감기증상이 오래 지속되더니 몸이 부어오르고 숨이 가쁘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는 의식까지 흐려지게 돼서 군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급성사구체신염이란 병명이었는데 당일 바로 입원을 하라는 것이었다. 한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금까지는 '군인' 하면 어디한곳 아프지도 않고 모두 건강하게 전역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처음 알게 된 것이지만 군인들중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 줄을 몰랐다. 건강

대불련 가입후 봉사·신행 활동에 전념 군시절 입원, 기도의 소중함 알게 돼 '주정약독' 생활속 긍정적인 미래 확신

실은 고사하고 세상을 휘회 볼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할 줄 몰랐다. 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음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뿐이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탐하는 헛된 욕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참된 눈을 가진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했었다. 신교대 때는 통일을 염원하는 108개로 만든 우리나라 지도의 촛불 하나에 불을 밝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자대에 배치받아서도 주말마다 종교행사에 참석

한 몸으로 전역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군대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만 알리고 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치료와 더불어 기도라고 생각했다. 기도를 병행하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전역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다행히 병원은 호국사라는 절이 있어 하루에 한번씩 들러 기도를 했다. 한번 호 되게 아프거나 입원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되며 깨달음의 길을 닦을 기



그림 · 문병성

회도 얻는 것 같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입원한지 세달 만에 건강이 원상태로 회복되어 다시 자대로 복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의가사제대를 선택할 것인지 계속 병원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자대 복귀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다.

다시 자대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만기제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부처님의 기도가 함께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대학시절 나는 4년 동안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이 계셨다. 내가 졸업하던 해, 스님께서 7일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다.

나는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3일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루 세 번 108배 기도. 처음은 겁이 났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첫날 아침기도 때에는 힘들기는 했지만 해를 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더 이상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의식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고를스럼하는 사실은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고는 스님께 서도 동참하곤 했는데 스님과 호흡을 맞춰 절을 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

다. 스님과 나를 도반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도반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다.

3일간의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회향을 하게 되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리라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극기의 행복이라고나 할까?

그때 회향 선물로 받은 108염주를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 108염주는 지금도 내 수행의 도구로 여전히 내 마음을 이끌고 있다.

그 동안의 내 삶과 불교를 돌이켜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고통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마다 깨우치는 스승이었으며 또한 삶의 지침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는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수행생 신분으로 공부를 한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고등학교 이후에 나를 세운 불교가 나를 탄탄히 다잡고 있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 하면 그 정성만큼 긍정적인 미래가 찾아오게 될 것을 믿는다.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필)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오.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 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아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 이상 **100,000 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급랭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예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김근원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山蔘으로 효력을 돋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대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 |
|----------------|-----------------------|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변비가 나왔다. |
| ● 만성위염이 나왔다. | ● 혈색이 좋아졌다. |
|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 ● 천식이 떨어졌다. | ● 백혈병이 나왔다. |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 ● 물에 부기가 빠졌다. |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 ● 임파선이 나왔다. | |
|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

◆ 스님들께는 시주받으시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에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1Box(60포 : 20만원)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 011-9242-8292
 ◆ 동원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아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7-242-0808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창